

# 양계용 배합사료 수입개방

-자율과 창의를 막아오던 모든 명분을 휴지화 하였다-

〈양계장의 자가배합사료도 인정해야〉

김 중 경

협업오경농장 대표

**양계**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바람이 태풍과 폭우를 몰고올 예고편인지 아니면 우리 양계산업에 구석구석 끼어 있는 공해의 더러운 공기를 쓸어 몰아내고 신선하고 상쾌한 새로운 공기를 공급하는 산들바람이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람이 우리가 이용하기에 따라서 태풍으로 또는 공해를 몰아가는 고마운 바람으로도 될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65년 외국에서 종계가 수입되고 사료곡물이 수입되는 바람을 타고 승승장구 발전하여 왔다. 그후 73년 제 1 차 석유파동에 따라 74년의 극심한 사료곡불가격의 폭등과 소비위축으로 한때 크게 어려움을 당한때도 있었다. 이때의 바람은 태풍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왔었다.

75년이후 해외건설 등이 활발해지면서 불어온 새바람은 78년을 정점으로 제 2 의 도약기를 맞이 하였었다.

81년의 우리경제에서 마이너스 성장의 바람으

로 한때 침체되었던 양계산업은 그후 안정적 발전을 거쳐 이제 양계용 배합사료의 수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양계농가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86년에 우리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의 수출입정책도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 수입개방 압력이 높아져 담배 등 기호품이 수입개방 되었고 양계용 배합사료도 수입자유화되어 사료수급정책에 전환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머지않아 양계산물을 비롯한 대부분 축산물의 수입에 대처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유통을 효율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정책의 최우선을 차지하여야 하며 산업의 구조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개편되지 않으면 안된다.

##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바뀌어야

일본이 명치유신을 통하여 근대 산업국가로 발전하는동안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바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왜국정책을 펴온 것이 우리가

후진국으로 남게된 결과가 되고 말았다.

## 축산정책 시정의 계기 되기를

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우선 산업이 발전 되어야 하고 정부나 학계나 기업이 모두가 어떻게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느냐에 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최종 상품을 값싸고 품질좋은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양계산업의 경우에 품질 좋은 계란과 닭고기를 값싸게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는 계열화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양계산물생산비의 80%를 차지하는 배합사료와의 연계를 위한 아무런 정책적 배려도 찾아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생산비를 높게 만들고 닭고기나 계란의 품질 향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몇가지 정책은 양계농가가 이해하기 힘들고 정부와 양축가와의 거리감만 높여줄 뿐이다.

사료용 곡물의 수입 쿼터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서 얼마 안있으면 사료가 품질떨것이라는 소식은 양축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배합사료의 품질이야 어떠하든 공급해 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반 협박의 소리로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값싼 밀보다는 비싼 밀기울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고 대두박 보다는 기타 잡박류를 수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값싸고 품질좋은 배합사료가 양축가의 손에 공급되어질수 있겠는가?

배합사료수급정책은 사료공장이 아닌 양축가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하며 양계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장 자가배합사료공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양축농가의 자가배합 사료공장 길 터야

물론 모든 농장이 자가배합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규모의 농장이 원할때는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강피류, 대두박, 어분등 배합사료 원료를 생산지에서 사료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상하차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고 사료공장에서 처리를 거쳐 다시 포장하고 상하차 운반비용을 포함해서 농장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낭비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운송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이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제도는 시정 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가배합공장이 많아지면 정부의 사후관리가 어렵다는등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편의 때문에 안된다면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사료공장의 시설용량을 허가하면서 양축가의 자가사료공장의 길을 막아 놓는다는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 생산비 15% 절감가능

일반적으로 자가배합사료를 할 경우 사료비가 약 20%정도 절감 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계란이나 닭고기를 15%정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 수송비(사료가격 중에서)	3%	절감
· 판매경비( " 에서)	10%	절감
· 위상판매손실 및 이익 ( " )	3%	절감
· 포장비 ( " )	2%	절감
· 감각상각 ( " )	1%	절감
· 단순화경비 절약 ( " ) (원료확보 제조경비등)	1%	절감
	계 20%	절감

이렇게 되면 경남지역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일본 관서지방(오사카 중심)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수출상품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 양계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양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이는 희망적인 가정이 아니라 일본 엔화의 상

승으로 일본의 바이어들과 구체적인 상담이 이미 끝난 상태이며 한국에서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수출이 가능한 상태이다(일본의 국민소득, 인건비, 생산비, 예상되는 환율, 일본의 동물검역제도, 유통구조 등 검토).

양계산물이 일본으로 수출되면 국내 양계산업은 활력이 넘칠 것이고 그때를 생각만 해도 양계인이라면 가슴이 뿌듯할 것이다. 더군다나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하고 미국에는 수출과 연계시켜 사치성 소비물자의 수입 압력을 받을 것이 아니고 농촌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료곡물의 수입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축산물은 국민 식량의 개념으로 다루어야 할 시기에 와있으며, 정부의 우선 정책이 농어촌 개발 종합대책이란 점에서도, 국내외의 모든 여건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산업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양계산업은 정부의 정책여하에 따라서 발전할수도 퇴보할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어 정책 입안자의 올바른 판단과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양계용 배합사료의 수입개방이 지금까지의 비합리적이고 자율성과 창의력을 발휘할수 없도록 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양계농가의 자가배합사료공장을 인정하여 농가중심의 계열화 생산유통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제 양축농가를 보호가 아닌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져야 한다.

배합사료를 수입개방 하면서 국내 양축가가 자기 답에 맞는 값싼 사료를 만들 수 없도록한 현재의 모순은 하루속히 제거 되어야 할것이다. ■

값싼 병아리  
튼튼한 병아리

## 이것이 한일농산의 기본정신입니다.



하이브로 : 하바드

###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였습니다

분업화 전문화는 값싼 병아리 튼튼한 병아리 생산의 지름 길이며 양질의 서비스로 여러분의 영원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사업본부 :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암산리 408 (전화 0336-32-6168)  
 판 매 점 : 천 안 백마축산 (전화 0417-3-0964)  
 의정부 새한축산 (전화 0351-40-5492)